

본 논문은 비교적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의 시기였던 기원전 8세기 초·중반의 북 왕국의 사회적 상황을 알아보고, 어떤 요인들이 이스라엘의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는가를 진단하고자 한다. 아울러 예언자 아모스의 심판 선포 속에 암시되어 있는 신학적 논쟁의 의미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한다.

북 왕국 멸망의 사회적 원인과 예언자 아모스의 심판 선포

이 회학 | 목원대

1. 들어가는 말

열왕기하의 보도에 따르면, 북 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였다. 대내적으로는 반란이 끊이지 않았고, 대외적으로는 앗시리아의 침공을 받아 피폐한 생활을 감내해야만 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여로보암 2세(기원전 786-746)의 죽음과 함께 예후 왕조는 실제로 끝이 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기원전 746)는 사마리아에서 단지 6개월 동안만 통치하였고, 모반자 야베스의 아들 살룸(기원전 746)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살룸은 한 달 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기원전 746-735)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 므나헴은 비교적 길게 10여 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기원전 735-734)에게 왕권을 계승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브가히야는 불행하게도 2년여 후에 길르앗 사람 50명의 도움을 받아 반역을 일으킨 그의 군대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기원전 734-732)에 의해 일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베가는 2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의 통치기간 동안 앗시리아의 왕 디글

랏 빌레셀 3세(기원전 745-727)가 침공하여 이혼, 아벨벳마야가, 야노아, 게데스, 하술,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를 빼앗았고, 북 왕국의 백성은 앗시리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었다. 베가는 아람 왕 르신과 함께 반 앗시리아 입장을 취하였다가 결국 앗시리아의 지원을 받은 엘라의 아들 호세아(기원전 732-723)의 반역으로 살해당하고 만다. 호세아는 9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호세아는 처음에는 매년마다 앗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그것을 중단하고 친 애굽 정책을 펼치게 되었는데, 이에 살만에셀 5세(기원전 727-722)는 북 왕국 온 땅을 침략하고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한 끝에 완전히 정복하게 된다.

신명기 사가의 역사서가 북 왕국 멸망의 원인을 주로 신학적 차원에서 제시했다고 본다면,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한 예언자 아모스의 심판 선포는 새로운 차원을 추가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아모스는 - 기원전 9세기 예언자들은 지도자 개인의 악행과 재앙을 선포한 반면 - 사회 구조와 정치 제도 자체를 날카롭게 비판하였는데, 그의 새롭고도 과격한 예언적 저항은 북 왕국 이스라엘의 붕괴를 초래하게 된 당시의 사회적 원인들과 깊이 관련되고 있는 것이다.¹⁾ 이 예언자의 급진적인 고발 메시지는 동시대에 큰 반대에 부딪쳐 폭넓은 지지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의 피 끓는 절규는 제한된 집단에서 받아들여졌고, 오랜 기간 동안 야훼 종교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후에는 현재의 예언서 탄생의 토대가 되었다. 본 논문은 비교적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의 시기였던 기원전 8세기 초·중반의 북 왕국의 사회적 상황을 알아보고, 어떤 요인들이 이스라엘의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는가를 진단하고자 한다. 아울러 예언자 아모스의 심판 선포 속에 암시되어 있는 신학적 논쟁의 의미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한다.

2. 기원전 8세기 초중반 북 왕국의 사회적 상황

예언자 아모스의 사회 고발과 비판의 내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기원전 8세기 초·중반의 북 왕국의 사회적 형편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인 연구 작업에 속한다.

1) K. Koch, "Die Entstehung der sozialen Kritik bei den Profeten," H. W. Wolff(ed.), *Probleme biblischer Theologie*, FS G. für von Rad,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71), 236-257쪽.

1) 대지주 탄생으로 인한 평등주의 이상의 완전한 붕괴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 동안 북 왕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인 안정을 누렸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번영을 구가하였다. 그 이유는 내부적 요인 때문이라기보다는 외부적 환경에 기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앗시리아의 아닷나라리 3세(기원전 810-782)는 왕위에 오른 직후에 다메섹을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도록 하는데 성공하였고, 아람 족은 이로 인해 극심한 쇠퇴기에 빠져 있어 더 이상 북 왕국을 위협하는 무서운 세력이 될 수 없었다. 앗시리아 역시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한 것에 만족을 느끼고 있어 본질적으로 아직은 북 왕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될 수는 없었다. 이러한 국제적 세력 균형의 상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략 반세기 동안의 평화를 가져다주었고, 상업과 무역 활동을 촉진시켜 경제적 부흥의 시대가 열리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새로운 경제적 이익과 부는 불행하게도 모든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지 못했다. 활발한 국제 무역을 통해 생겨난 경제적 혜택은 시골보다는 도시에, 시골 사람들보다는 도시민들에게 집중되었던 것이다. 국제적 평화 관계가 지속되고 무역이 활발해질수록 더욱 많이 생겨나는 경제적인 이득은 오히려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켰고, 많은 수의 대지주와 큰 부자들을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2) 상업의 발달은 오히려 많은 백성들에게 상대적 빈곤을 초래하였고, 농민들의 심한 부채로 인한 토지의 집중화 현상은 소작농의 생성과 대지주의 등장을 재촉하였던 것이다. 3) 상업과 무역의 발달은 또한 화폐경제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왕하 15장 20절은 므나헴 시대에 북 이스라엘에 큰 부자들이 많이 존재하였음을 보도하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큰 부자들로부터 은 50세겔씩을 걷어 앗시리아의

2) A. H. J. Gunneweg, *Geschichte Israel. Von den Anfängen bis Bar Kochba und von Theodor Herzl bis zur Gegenwart*(ThW 2), (Stuttgart: W. Kohlhammer, 1989⁶), 111쪽.

3) 우택주, "8세기 문서 예언을 형성시킨 결정적 요인들," 「구약논단」 9집 (2000년 10월), 137-166쪽은 기원전 8세기에 부가 상류층에 집중되고 하층민이 가난과 억압에 시달리게 된 원인이 도시의 소수 엘리트 지배계층에 의해 주도된 집약 농업의 역학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다른 논문 우택주, "8세기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약농업 정책의 고고학적 증거들," 「구약과 신약의 세계: 박준서 교수 헌정 논문집」(서울: 한울출판사, 2001), 222-241쪽에서 포도와 올리브 과수재배를 위한 대단위 테라스 조성, 포도주 발효용 탑 건축, 가로기둥 기름 추출기의 보편화, 저장시설과 대규모 창고 건설 등을 지배계층이 생산과 수출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촉진한 기술혁신의 예들로 소개하고 있다.

왕 풀(Pul)에게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쳤다. 은 1달란트가 3,000세겔이므로 므나헴 당시에 북 왕국에는 최소한 6만 여명의 부자들이 살고 있었다는 말이다. 물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 숫자는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왕실에서 상당 부분을 감당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기원전 8세기 초·중반에 북 왕국에는 많은 수의 큰 부자들과 대지주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⁴⁾ תַּבְּרִי-חַיִל(김보레 하일/큰 부자)란 원래 용감한 전쟁의 용사를 지칭하는 단어이지만,⁵⁾ 본문에서는 경제적으로 힘있는 사람, 즉 많은 토지를 소유한 대 지주를 가리키고 있다. 군사적 의미의 단어가 경제적 의미의 단어로 사용된 셈이다. '큰 부자' 내지는 대 지주의 등장은 새로운 상류층의 탄생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평등 사회의 이상을 붕괴시키고 사회 계층의 심각한 불균형을 심화시키는데 중심 축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 구조의 현저한 변화는 기원전 8세기 초·중반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왕국 탄생 이후부터 생겨난 계급적 사회 변화에 그 근본적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⁶⁾ 그렇지만 옛 지파 공동체가 왕국 이전 시대에 오랜 기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평등주의 이상이 북 왕국에서 완전히 붕괴된 결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여러 특권 계층들이 현저한 경제적 번영의 혜택으로 대규모 토지 소유가 가능해졌던 기원전 8세기 초·중반에 이르러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토지는 이제 더 이상 생계를 위한 유지 수단이 되지 못했고, 시장 경제 논리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다. 즉 기원전 8세기 초·중반에 이르러 토지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매매가 금지된 '거룩한'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증식과 부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상업 활동을 통해 얻어진 이득을 저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를 구입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경제 계층은 합법적으로든 불법적으로든 가능하면 더 많은 토지를 매입하여 대 지주가 되었던 것이다. 전통적인 소

4) 정 중호, 「열왕기하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11)」(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282쪽.

5) H. Eising, Art. "תַּבְּרִי," *ThWAT II* (1977), 906쪽.

6) H. G. Kippenberg, "Die Typik antiker Entwicklung," ders(ed.), *Seminar: Die Entstehung der antiken Klassengesellschaft*(STW 130 1977), 173-204쪽.

농민들 위에 군림할 수 있게 된 부유한 대 지주 계층에는 그 동안 특권을 누리왔던 왕실뿐만 아니라,⁷⁾ 평화 시대의 국제 무역과 시장 경제를 통한 잉여금을 손에 질 수 있었던 왕실의 관리들⁸⁾과 군인들과 상인들도 포함되었다.

큰 부자들과 대 지주가 여러 부류에서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은 소농민들의 삶의 조건과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참담해졌음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평등주의의 이상이 완전히 붕괴된 기원전 8세기 초·중반의 북왕국의 경제 구조는 극단적 이원화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다. 소수의 대지주들은 점점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를 원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대다수의 소농민들은 점점 벼랑 끝에 몰리는 비참한 형국이 되었다. 사회적 구별은 거주지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었는데, 부자들끼리 모여 사는 거주지가 생겨났던 것이다. 드보(R. de Vaux)는 디르사(Tell el-Fāra'a)의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부자들의 집과 가난한 자들의 집은 도시의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집들의 규모와 건축 재질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⁹⁾ 부자들의 집은 가난한 자의 집보다 2배 정도의 규모였으며, 부자들의 집은 잘 다듬어진 돌을 가지고 두 줄로 기초 공사를 시행한 반면, 가난한 자들의 집은 깨어진 돌을 가지고 한 줄로 집의 토대를 쌓았을 뿐이다. 이러한 거주지의 구별은 차별적인 신분이 사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며, 전통적인 평등주의의 이상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당시의 모순적인 사회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한 것은 전쟁이 사라짐으로 발생한

7) 왕실의 대규모 토지 소유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왕상 21장)에서 볼 수 있듯이 백성들의 모든 경제생활이 왕의 독점적인 권력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는 가나안의 절대적인 토지법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국가의 관리들에게 하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토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왕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토지법을 고수할 수 없었던 것이다.

8) 예를 들어 서기관, 궁내대신, 관원 등은 포괄적으로 왕실 관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ספר(소페르/서기관)은 외교 문서의 작성과 보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외국과의 활발한 교류로 인해 지위가 향상되었다(왕하 18: 18; 19: 2; 사 36: 3, 22; 37: 2). T. Mettinger, *Solomonic State Officials*, (Lund: Gleerup, 1971), 70-110쪽의 연구에 의하면, נָגִיד־הַבַּיִת(나기드 하바이트/궁내대신)은 기원전 8세기에 가장 높은 관직으로 왕궁에 속한 재산을 관리하고 왕궁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매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왕하 18: 18; 19: 2; 대하 28: 7). קַצֵּין(카짚/관원)은 군사 지도자로 중요한 사회적 계층을 이루게 되었다(사 1: 10; 3: 6; 22: 3; 미 3: 1, 9).

9) R. de Vaux, *Histoire ancienne d'Israël des origines à l'installation en Canaan*. I. Études bibliques, (Paris: Gabalda, 1971), 72f. 쪽.

현저한 인구증가와 가혹하고 무자비한 채권법이었다. 후손들의 증가는 소 농민들에게 제한된 토지 사용의 심각성을 배가시켰는데, 특히 기본적인 식량의 자급자족과 일반적인 조세 부담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생계 유지의 곤란에 빠진 소 농민들은 대 지주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인색한 경제 조건하에서 결국 채무 노예가 되든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주받은 계층이 되고 말았다. 이들은 예언서에서 '약자'(ㄴㄱ/달, 암 2: 7: 4: 1: 5: 11: 8: 6; 사 10: 2), '가난한 자'(ㄱ ㄱㄱ/에브론, 암 2: 6: 4: 1: 5: 12: 8: 4, 6; 참고. 렘 2: 34; 5: 28; 22: 6; 겔 16: 49; 18: 22; 22: 29), '겸손한 자/가없는 자'(ㄴㄴ/아니 혹은 ㄴㄴ/아나브, 암 2: 7: 8: 4; 사 3: 14f.; 10: 2; 참고. 렘 22: 16; 겔 16: 49; 18: 22; 22: 29) 등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토지를 잃어 항구적인 가난에 빠지고 경제적으로 내려앉은 자들인 것이다. 대규모 농장의 등장, 도시화의 진행, 화폐 경제의 활성화, 행정의 중앙 집중화, 가족과 씨족 단위의 농사의 어려움 등은 가난한 자들의 등장을 위한 전제 조건들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당시의 채권법은 섬뜩할 정도였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한 이자¹⁰⁾는 채무자로 전락한 소 농민들의 재산과 가족과 담보물을 합법적으로 강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경제력이 약했던 소 농민들은 빌린 대부금을 위해 대 지주들에게 자신의 토지나 수확물 등을 저당 잡혀야만 했고, 부담이 과중하여 값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완전히 빼앗기거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노예처럼 노동을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가족 중의 누군가가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다(암 2: 6: 8: 4-6; 참고. 출 21: 5f.). 그러나 그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은 지나치게 값이 저렴하고 지불해야 하는 채무 비용은 터무니없이 늘어나 처음의 빚을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채무 노예의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대 지주들은 값싸고 유익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법을 잘 활용하여 가능한 한 많은 소 농민들을 영속적인 채무 상태에 묶어두길 원했다. 대 지주들은 농산물 수입을 증대시키고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속되어 있는 농민들로부터 가능한 많은 소작료를 징수해야만

10) 기원전 5세기에 기록된 엘레판틴 파피루스(AP 10-11)는 유대인들의 채권법에 따르면 연이율이 60%에 달했다고 전하고 있다.

했던 것이다. 어쨌든 큰 부자 내지는 대 지주의 현저한 증가와 함께 나타난 전통적인 소 농민들의 생존의 위기는 기원전 8세기 초·중반의 뚜렷한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전통적인 공동체적 유대 관계의 붕괴

상업의 발달로 인한 대지주의 탄생과 소작농들의 증가는 가족의 연대감을 약화시키고, 전통적인 공동체적 유대 관계에 현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토지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곤란은 도시화를 촉진시키고 개인주의의 확대를 가져온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물려받은 조상의 토지와 고향과 가족을 버리고 도시로 이동해야만 했는데, 그들 대부분은 도시의 가난한 일용 노동자로서 살아가야 했다. 이러한 극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에게서 가족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공동체적 유대 관계를 기대하기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난 기원전 8세기 초·중반에 이르러 전통적인 대 가족 제도는 특히 도시에서 상당 부분 느슨해졌음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질서를 보존하고 상업의 발전으로 인한 이익을 정의롭고 균형 있게 분배시켜야 할 각종 사회 제도는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 상황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예를 들자면, 지파 구성원들 중의 누군가가¹¹⁾ 극심한 가난 때문이나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려받은 토지를 팔게 되었을 경우, **גֹּאֵל**(고엘/구속자)로 나선 가까운 친족 중 하나에게 이를 되돌려 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옛 **קְנוּיָהּ**(게올라) 규정(레 25: 25-28)¹²⁾은 아무런 시대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구속자의 서열은 형제-삼촌-사촌의 순

11) 레 25장 25-28절에서는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아야만 하는 자를 계속해서 “형제”(אָח)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문맥상 좁은 의미에서 친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지파 내지는 친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12) 렘 32장 6-9절은 친족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토지를 되돌려 구입한다는 게올라 규정이 아니라, 가난한 친족이 팔려고 내놓은 토지에 대한 우선적인 매입권에 대한 게올라 규정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예레미야는 숙부인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와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입의 우선권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D. A. Leggett, *The Levirate and Goel Institutions in the Old Testament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Book of Ruth*, (New Jersey: Doubleday, 1974), 88-92쪽에 의하면, 원래적인 게올라 규정의 의도는 이미 팔린 친족의 토지를 되찾아오는 것이었는데, 후대에 가서 토지의 매입을 위한 우선권이 친족에게 있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서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레 25: 48-49), 좀 더 상세한 연대 책임의 순서적 계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지 못한다. 룻기는 친족 구속자의 순서적 계보가 역사적으로 실행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룻 2: 20; 3: 12; 4: 1-9). 룻은 보아스에게 구속자 역할을 요구하였지만, 그보다 먼저 더 가까운 친족에게 룻의 구속자 역할이 주어지게 되었다. 어쨌든 구속자의 의무는 잃어버린 조상의 토지에 대한 친족의 소유권을 되찾는 일이다. 게울라 규정이 가까운 친족에게 구속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연대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울라' 규정에 의하면, 되돌려 구입한 토지는 돈을 지불한 친족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의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줌으로 대 가족이나 지파의 연대감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이었다.¹³⁾ 이 규정의 의미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다른 가문에게 넘기지 않으려는 데 있었다. 하지만 기원전 8세기 초·중반에 이르러 이 제도가 철저히 악용되어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친족들의 토지를 합법적으로 매입하고 재산을 증대시켜 주는 수단이 되고 말았는데, 되돌려 구입한 토지가 원래의 주인인 가난한 친족들에게 되돌아가지 않았던 것이다. 비참한 상황에 처한 친족을 위해 어떤 가까운 친족이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삭막한 시대가 되고 만 것이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사법 제도로 간주될 수 있는 성문에서의 재판 제도 역시 기원전 8세기 초·중반에 이르러 그 의미가 현저히 퇴색되었는데, 소송 당사자의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형편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옛 지파 체제에 속한 재판권은 왕실을 비롯한 정치 권력자나 대 지주와 같은 경제적 실권자에 의해 오염되어 사회를 지탱할 힘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다. 신분의 차별은 공의로운 재판을 무력화시켰고, 성문은 오히려 가난한 자가 굴복 당하는 불의의

13) J. Pedersen, *Israel Its Life and Culture I*, (Oxford: Clarendon, 1964), 84-88쪽; D. Daube, *Studies in Biblical Law*, (New York: Pilgrim, 1969), 273쪽은 우가릿 문헌에 근거하여 되돌려 구입한 토지가 즉시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년이 될 때까지 친족 구속자가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게울라 규정의 원래적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구속"이란 토지가 원래의 주인에게로 완전히 귀속되었음을 암시하는 단어이다. 그리고 구속자가 가난에 처한 친족의 토지를 되찾아와 자신이 관리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난한 친족을 돕는 행위이며 친족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일이 되겠는가

장소가 되었다. 가난한 자는 재판관에게 뇌물을 바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어떠한 법적 보호를 얻어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전통적인 사법 체계는 권력자들의 주장 앞에서 어이없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기원전 9세기에는 아합과 같은 왕권의 공격이 전통적인 사법권을 무력화시켰었다면(왕상 21장), 기원전 8세기 초·중반에 이르러는 권력을 쥐고 있는 여러 사회 계층들과 대규모 토지 소유자들까지도 전통적인 사법 제도를 파괴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일반 백성들은 뇌물을 받고 거짓 증인으로 나서는 총체적인 사법 타락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언자 아모스는 무죄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법을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는데, 특히 성문에서의 재판 제도가 무너져 내렸음을 한탄하고 있다: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암 5: 10).”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암 5: 12).”

공적인 재판 장소인 성문에서 법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재판관들과 진실을 증언해야 하는 증인들은 권력과 돈으로 법을 왜곡하려는 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기원전 8세기 초·중반의 시대였던 것이다. 법을 통한 진실의 빛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에 의해 심하게 가려져야만 했다. 부조리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작농과 같은 가난한 자는 최소한의 자신의 권리조차 지킬 수 없게 되었고, 많은 일반 백성들은 벗어날 수 없는 극심한 채무자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재산이 없다는 것은 권리를 상실했음을 의미하였다. 억울한 재판을 통해 한 맺힌 백성들이 많은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는 법이다. 소수의 권력자들과 대 토지 소유자들은 왜곡된 재판을 통해 무죄한 다수의 백성들의 행복을 짓밟고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성문에서의 재판이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는 한 사법적 권위는 더 이상 기원전 8세기 초·중반의 시대를 책임질 수 없었던 것이다.

사법적 권위의 타락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지적한 예언자들의 비판적

메시지를 소수의 불경건한 상류층들과 일부 몰인정한 부자들을 향한 고발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뇌물로 재판관을 매수하고 전통적인 채권법이 악용되어 가난한 자들이 빚의 노예로 팔리는 것은 드물게 발생하는 개별적인 일이 아니었다. 그러한 일들은 경제적 발전의 이익을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회 구조적 모순의 필연적 결과였다. 평화로운 시대에 상업의 발전으로 인한 경제 성장의 혜택이 모든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일부의 상류층과 부자들에게만 집중되었던 것이다. 대다수의 상류층들과 대규모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¹⁴⁾ 사회 지배층들은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소 농민들의 전통적인 경제 활동 방식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들의 이익 추구 방법을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신식 경제 활동으로 합리화하였을 것이다. 대다수의 상류층은 발전된 왕정의 상업주의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부유함에 신학적 정당성을 부여하기를 원했는데, 놀랍게도 신명기는 경제적 부유와 풍부한 결실이 야훼 하나님께 허락하여 생겨난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신 14: 24, 29; 15: 14; 23: 21; 24: 19). 잠언의 많은 지혜 격언들조차도 부자들을 전혀 비판하고 있지 않으며, 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잠 3: 16; 10: 4, 15; 11: 16; 12: 27; 14: 20; 19: 4). 잠언의 몇몇 구절들은 - 사회적인 갈등의 존재를 암시하기는 하지만 -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현실적인 공존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잠 18: 23; 22: 7).¹⁵⁾ 하지만 이러한 신학적 입장이 과연 사회 윤리적인 차원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는 극단적 경제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14) R. Kessler, *Staat und Gesellschaft im vorexilischen Juda, Habilitationsschrift*, (Stuttgart: W. Kohlhammer, 1990), 127쪽; Koch, "Entstehung," 248쪽.

15) 물론 지혜 격언에서 가난과 부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 작업이 시도된 흔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잠 10장 2절; 11장 4절; 16장 8, 19절; 19장 1절; 28장 6절 등은 재물의 무익성을 강조하거나 적은 양이라도 불의한 재물이 아닌 의로운 재물을 취득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G. Fleischer, *Von Menschenverkäufern, Baschankühen und Rechtsverkehren. Die Sozialkritik des Amosbuches in historisch-kritischer, sozialgeschichtlicher und archäologischer Perspektive*(BBB 73), (Köln: Peter Hanstein Verlag, 1989), 333f. 쪽은 의로운 재물의 소득을 강조하는 사회적 격언들이 아모스 예언의 신학적 근거로 활용되었다고 주장한다.

3) 앓시리아의 침략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기원전 8세기 중·후반 북 왕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왕위 유혈 찬탈 사건과 사회적 혼란은 앓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3세의 등장으로 인해 야기된 국제 정치의 급속한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고 있다. 그는 시리아-팔레스타인을 두 번 침공하였는데, 첫 번째 침공(기원전 738년) 때에 므나헴은 조공으로 은 1,000달란트를 바치고(왕하 15: 19f.) 결국 앓시리아의 속국이 되고 말았다. 당시 북 왕국의 정치 체계가 허약했다는 것은 이러한 외부의 침략에 맞서 싸울 정치 군사적 저항이나 자발적인 백성들의 항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응집력의 부재는 정치적 불안정을 의미하였다.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친 앓시리아 정책을 견지하자, 베가는 그를 살해하고 왕위에 올라 다메섹의 르신과 함께 앓시리아에 대한 반역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 사건은 백성들 전체의 반 앓시리아 움직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있던 두 경쟁적 정치 집단간의 갈등이 외적으로 강하게 표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디글랏빌레셀 3세의 두 번째 팔레스타인 원정은 시리아-에브라임 전쟁(기원전 734)이 그 빌미가 되었다. 사마리아의 베가와 다메섹의 르신은 반 앓시리아 동맹 체제에 가담하지 않은 예루살렘의 아하스를 무너뜨리고 자기들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 유다를 공격하였다(사 7: 6). 오므리 왕조 이후에 다시 한 번 사마리아와 다메섹 사이에 동맹이 체결된 것이다. 이에 아하스는 앓시리아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디글랏빌레셀 3세의 즉각적인 개입으로 전쟁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끝을 맺게 되었다. 오히려 베가와 르신은 앓시리아 반역 행위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 앓시리아에 대한 반역 운동의 주동자였던 다메섹은 북 왕국보다 훨씬 혹독한 보복을 받아야만 했다. 르신은 여지없이 죽임을 당하였고, 아람의 영토는 지독한 약탈을 당한 후에 앓시리아의 주로 편입되었다(왕하 16: 9). 북 왕국은 상당히 넓은 영토를 빼앗기고, 그 지역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왕하 15: 29). 그리고 친 앓시리아 세력의 후원을 받은 호세아는 베가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디글랏빌레셀 3세는 직접 호세아를 사마리아의 왕으로 임명하였다. 호세아는 집권 초기에 친 앓시리아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기원전 724년에 애굽의 도움을 받아 앗시리아에 반기를 들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앗시리아의 살만에셀 5세의 징벌을 초래하고 말았고, 결국 사마리아는 함락 당하고 대략 28,000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왕하 17: 1-6). 이로써 북 왕국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건국된 지 200여 년이 지난 후에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 버린 것이다.

기원전 8세기 중·후반의 북 왕국은 앗시리아의 계속된 침략으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불안정과 정치적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결국 북 왕국은 정치적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이다. 북 왕국의 사회는 외부의 침략에 저항할만한 강력하고도 안정된 힘을 소유하지 못했으며, 정치인들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시소게임을 벌이며 자신들의 권력만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사마리아가 함락을 당한 후에 북 왕국은 앗시리아의 주로 편성되어 '사마리아'로 불리게 되었고, 앗시리아는 정복한 지역 백성들을 혼합시킴으로 저항 세력들을 미리 분쇄시키고 그들을 앗시리아의 지방 조직 속에 완전히 편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 사람들을 북 왕국의 여러 성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것은 후에 민족 혼합이라는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이 경멸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다(왕하 17: 24). 기원전 720년에 사마리아는 다메섹을 비롯한 몇몇 다른 지방과 합세하여 앗시리아에 반란을 일으켰으나 성공하지 못한다. 결국 북 왕국의 백성들은 유다로 망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예루살렘의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3. 예언자 아모스의 사회 고발과 비판

기원전 8세기 초·중반에 경험한 북 왕국의 발전과 성장을 기원전 760년경에 활동했던 드고아¹⁶⁾ 출신의 아모스는 매우 위협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고 전면적인 저항과 비판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제도권에 예속

16) B. Lang, "Prophetie und Ökonomie im alten Israel," G. Kehrer(Hg.), "Vor Gott sind alle gleich," *Soziale Gleichheit, soziale Ungleichheit und die Religion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3), 66쪽은 아모스의 고향을 예루살렘 남쪽 18마일에 위치한 드고아(Hirbet Teku)로 보지 않고, 탈무드에 언급된 갈릴리 상부 지역의 드고아로 추측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전히 남 왕국에 위치한 드고아를 아모스의 고향으로 간주하고 있다.

되어 있지 않은 개별 예언자로서 조합을 만들어 공동 생활을 하면서 예언 활동을 하는 직업적인 예언자는 아니었다(암 7: 14). 아모스는 경제적 독립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자신의 토지를 소유한 중산층 농부로 추측되기 때문이다.¹⁷⁾ 이러한 아모스의 경제적 독립성은 사회 지배 계층을 향해 강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었고, 사회 구조적 모순을 파악하는 통찰력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¹⁸⁾ 아모스는 이전의 어떤 예언자들보다도 대담하고 가치없이 사회 지도층의 경제적, 사회적 죄악을 폭로하였다.

1) 저당법과 채권법의 악용에 대한 비판

여로보암 2세의 통치기간 동안 대외 정치적 세력 균형으로 인해 성립된 국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은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의 무서운 전쟁의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예언자 아모스는 풍요와 번영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북 왕국의 멸망의 징후들을 발견하였고, 사회 구조의 근원적인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고발과 비판의 예언을 선포하였다. 그는 사회 지도층에 속한 자들의 범죄 행위를 폭로하고, 그들의 잘못된 행위가 초래하는 심각한 파괴적인 결과들을 선포하였다. 아모스의 도발적인 메시지는 사회 지도자들의 분노를 야기시켰고, 그는 결국 북 왕국에서 추방되기에 이른다(암 7: 10ff.). 하지만 북 왕국 사회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의 예언은 소수의 제자 그룹을 통해 받아들여졌고, 이 저항 집단은 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로 야훼 종교적 저항 문헌으로서의 예언서를 탄생시키게 되었다.

아모스 예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가 북 왕국 상류층에 의해 실행된 저당법과 채권법의 무차별적인 악용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언자는 방대한 토지를 소유한 대 지주들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지나친 탐욕을 부리고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그들의 과도한 토지 증식 욕구가 가난한 소 농민들을 학대하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으로부터

17) 아모스가 사회의 어느 계층에 속했던 인물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암 1장 1절은 아모스를 **בְּקֵדְיִם**(노케딤/목자들) 중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으며, 암 7장 14절은 그를 **בְּקֵדְיִם**(보케르/소 사육자)와 **בְּקֵדְיִם** (보레스 쉬크림/돌무화과 재배자)로 언급하고 있다. 이에 근거에 그를 지나치게 낮은 계층 사람으로 간주할 수 없고, 오히려 토지를 소유한 중산층에 속한 자로 이해할 수 있다.

18) 참고. 박 중수, “아모스 5:1-17 연구,” 「구약논단」 5집 (1998년 10월), 101쪽.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고발하였다(암 8: 4). 예언자 아모스는 돈을 탐내는 가진 자들이 야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전통적인 저당 법과 채권법을 악용하였음을 비난하였던 것이다. 야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부재는 인간 상호간의 존경심의 상실로 이어지게 되는 법이다. 가진 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소작인들에게 부당한 곡물세를 부과했으며, 심지어는 사소한 빚으로 인하여도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주저 없이 유린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암 2: 6; 5: 11; 8: 6).¹⁹⁾ 아모스는 가진 자들의 이러한 강도질과 같은 잔인한 약탈 행위를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였다. 그는 가진 자들의 양심 없는 경제적 이기주의가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의 사회 윤리적 무책임이 공동 사회의 파멸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곡물세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 대 토지 소유자들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은 후에 현물로 갚아야 하는 막대한 지대(地代)인데, 정작 소작인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은 형편없이 적었던 것이다. 아모스는 북 왕국의 부유한 자들이 야훼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한 채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인간의 존엄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위태로운 사기와 위선적인 부 정직에 몰두하고 있음을 비난하였다. 즉 그는 사회적 불의와 야훼 하나님을 향한 경건 사이에 존재하는 빈틈을 예민하게 감지하였던 것이다. 아모스는 북 왕국의 가진 자들의 행위는 야훼 하나님의 실제적인 거룩성을 여지없이 모독한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억압당하는 가난한 백성들의 계급적 증오를 대변했던 자가 아니었다. 가진 자들은 사회적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아모스의 민족적 윤리에 대한 강조는 보다 깊고 넓은 야훼 종교적 배경 가운데 이해되어야 한다. 예언자는 사회의 상류층과 가진 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야훼 하나님의 현존과 자기 행동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의 행동은 철저히 대립하고 있음을 선포한 것이다. 아모스는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진 야훼 하나님의 모습은 절대적 침묵이 아니라, 이제 곧 다가올 대 재난의 강력한 징후임을

19) 암 2장 6절과 8장 6절은 외견상 유사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의미상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장 6절에서는 약간의 채무도 갚을 수 없는 처지의 가난한 자가 노예로 팔리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반면, 8장 6절은 가난한 자를 가능하면 싼 값에 노예로 파는 경우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두 구절 모두 가진 자들의 지나친 탐욕과 이익 추구에 대한 욕망을 비난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간파하였던 자이다.

2) 사치와 방탕에 대한 비판

아모스는 상류층 사람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강도 높게 비난하였는데, 이러한 사회 지도자들의 죄악이 바로 북 왕국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설파하였다. 사치와 방탕에 대한 아모스의 비판은 소박한 시골 목자 출신의 순진무구한 반응이나 지나치게 세련된 도시 문화에 대한 몰 이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상류층의 호화스러운 생활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여 얻은 부산물이기 때문에, 아모스의 예언은 귀족들의 호화로운 향락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던 셈이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는 거만한 자들은 야훼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예언자는 살아 계신 야훼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측정할 때, 인간의 삶의 모습과 행동을 그 척도로 삼고 있다. 인간을 향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한 자라는 말이다. 예언자는 북 왕국의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생활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불 신앙의 요소를 꿰뚫고 있다. 아모스는 북 왕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건축한 겨울 궁궐, 여름 궁궐, 상아 궁궐과 같은 사치스러운 궁궐들을 고발하고 있다(암 3: 15). 이 궁궐들은 진흙 대신에 잘 다듬은 돌로 지어진 일종의 화려한 저택 별장이었는데(암 5: 11), 그들은 그곳에서 철 따라 업무를 보면서 방탕한 술잔치를 배설하였다. 암 6장 4-6절은 귀족들의 향락 생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 구절에서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신들과 같은 생활”로 풍자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양떼와 송아지를 잡아먹는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식

사 모습은 신에게 드려져야 하는 제물을 연상시키고 있으며, 술자리에서 비파에 맞추어 부르는 시끄러운 노래는 포도를 압착하며 풍요의 신을 부르는 광포한 외침 소리와 관련되고 있다(참고. 렘 25: 30). 그리고 귀족들은 신에게 제사 드릴 때에 사용하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 것이며, 신에게 드려져야 하는 처음 묶의 귀한 기름을 자기 몸에 바른 것이다. 예언자는 귀족들의 사치스럽고 방탕한 죄악을 비난하면서 “신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교만함을 풍자적으로 다루고 있다.

암 4장 1-3절은 사마리아 귀부인들의 무분별한 사치와 방탕에 대한 고발인데, 예언자는 여기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북 왕국 최고의 부패한 모습을 대담하게 폭로하고 있다. 그는 사마리아의 거리를 활보하는 최고 지배 계층의 귀부인들을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모멸적인 어투를 사용하여 부르고 있다. 이 용어의 사용은 매우 의도적이다. “바산의 암소들”은 힘이 세며 살찐 소를 지칭하는 것인데(신 32: 14; 시 22: 12; 겔 39: 18), 아모스는 사마리아의 귀부인들을 이 방목 짐승에 비유하여 허영과 사치로 물든 그녀들의 방자한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사마리아의 귀부인들에 대한 아모스의 가혹한 비판은 사실은 그녀들의 남편들을 겨냥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남편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학대하고 농락하고 압제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치스러운 향락과 방탕 생활에 만족할 줄 모르는 부인들의 탐욕을 채워주어야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귀부인들의 이러한 탐욕의 본성은 일반 여인들이 지니고 있는 절제와 양보와 이해의 본질적인 상과 얼마나 다른가! 아모스는 여기서 북 왕국 사회의 타락의 극점을 묘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북 왕국 사회에는 더 이상의 희망의 여지가 남아 있지 않다는 말이다. 부인들은 백성들을 억압하는 ‘가정의 주인’의 잘못된 행동을 억제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남편들에게 지나친 요구를 통해 더욱 사회를 파괴시키는 간접적인 동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편의 악행이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부인들의 탐욕이 남편의 악행을 증폭시키는 장으로 왜곡되어 버린 가정의 모습은 당시 북 왕국 사회의 타락의 최고점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재판에서의 정의의 파괴에 대한 비판

아모스는 재판에서 정의가 여지없이 파괴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북 왕국의 파멸의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하였다. 당시 재판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공 장소인 성문이었다. 아모스는 험박과 뇌물로 인하여 성문에서는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재판을 통해 의로운 자는 악인이 되었고, 가난한 자는 더욱 비참해졌다(암 5: 10). 진실을 말하는 증인들과 의로운 재판관들은 법을 왜곡하려는 가진 자들과 높은 자들의 미움을 받아야만 했다. 그들은 정의로운 법의 빛을 싫어하였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중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사악한 부자가 뇌물(20)을 주고 법정에서 오히려 무죄한 자로 풀려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암 5: 12). 성문은 사회 질서를 지키고 공동체의 안녕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힘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의 탐욕과 착취의 장소로 변질된 것이다. 재산이 없다는 것은 곧 권리가 없음을 의미하는 법정이었다. 성문은 무죄하고 의로운 자들의 희망의 장소가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상류층에 충실한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아모스는 가난한 자들은 뇌물을 주고 재판관을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권리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물론 이러한 파렴치한 법적 사건이 아주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억울한 재판으로 인해 가난한 자들이 노예로 팔리는 경우는 자주 있어 왔다(출 22: 2f.; 왕하 4: 1). 아모스는 권력과 뇌물의 결합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악마적이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법과 뇌물의 유착 관계를 무서운 죄로 단정하고 과감히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아모스의 외침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가난한 형제 이웃들에 대한 정직한 책임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아모스의 법 정신은 언약서(출 21 - 23

20) 암 5장 12절에서 '뇌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קִפּוֹר(코페르)는 잠 6장 35절과 집회서 26장 19절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출 21장 30절; 민 35장 31절; 삼상 12장 3절; 욥 36장 18절; 잠 13장 8절 등에서 이 단어는 '속죄'의 의미를 지니고 등장한다: B. Lang, Art "kipper," *TWAT* IV (1984), 303-318쪽; 참고. 노 세영, "죽이는 속죄제물에서 קִפּוֹר(kipper) 의미의 연구 - 제사장 신학을 중심으로 -," 『구약논단』 19집 (2005년 12월), 31-52쪽. 후자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암 5장 12절의 내용은 좀 달라진다. 대 토지 소유자의 땅을 빌려쓰는 소작인이 지나치게 높은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친척중의 누군가가 낸 속전을 재판관이 갈취하는 사건의 경우를 말한다. 재판관은 단지 중재자의 역할만을 담당해야 하는데, 그가 속전을 가로챘기 때문에 소작인은 결국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다.

장)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²¹⁾ 법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사를 통해 세워진 세계 질서를 반역하는 것이다.

4. 나가는 말

아모스는 사회적이고 국제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의식과 이성적 통찰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였다. 그는 자신의 토지를 갖고 있었던 중산층 계층에 속한 자로 나름대로의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빈부의 극심한 대조를 통해 나타난 비극적 상황을 그냥 넘기는 무감각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확대하는 일에 전혀 무관심했고, 도리어 백성 전체의 삶의 모순적 상황을 조명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아모스는 경제적 풍요 속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늘을 찾아내었고, 대지주들과 정치 권력자들의 과도한 탐욕 속에 내재된 사회적 위기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의식의 소유자였고, 사회 경제적 이익이 소수의 특정 계층에게 배타적 소유물이 되고 있음을 투시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그의 야훼 신앙적 열정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점과 사회 구조적 악행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동기를 부여하였다. 아모스의 예언은 단순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수동적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야훼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북 왕국의 근본적인 사회악에 대한 능동적 반작용으로 출현한 것이다. 그는 신앙에 기초하여 북 왕국의 왜곡된 사회 구조에 전면적인 항거를 시도한 것이다. 빈부의 차이를 초래하는 사회 구조적 악행들을 투시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함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정의롭게 행동하고 평등한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야훼 종교적 전통의 만남이 아모스의 예언에서 최고의 정점에 도달했던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자의식의 경험과 종교적 열망은 예언자 자신의 안락한 삶의 현장을 벗어나서 비참한 소 농민들의 생활상을 바라보며 동질감을 느끼도록 해주었고, 왕국의 성장과 부흥이 가져온 경제적 이득과 부의 불균형에 관해 비판적 질문을 던지도록 충동하였다. 특히 예언자의 종교적 경험과 확신은 사회적 악행을 행사하는

21) 이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채 홍식, “언약법전과 8세기 예언자의 사회비판,” 「구약논단」 6집 (1999년 6월), 91-123쪽.

정치 권력자들과 상류층을 향해 예언 선포의 신적 권위와 신학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예언자 아모스는 외견상 매우 발전하는 것처럼 보였던 북 왕국 사회의 내부적인 사회 붕괴의 원인들을 통찰하고 있었다. 그는 경제적인 부흥과 왕국의 성장은 상류층의 불의한 범죄들로 인하여 곧 파국을 맞이할 것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발하였다. 그들은 북 왕국 사회의 전통적인 기본 가치 체계를 붕괴시킨 자들이며, 평등주의적 유대 관계를 추구하는 야훼 종교적 가치관을 파괴시키면서도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몰염치한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초가 이루는 **מִשְׁפָּחַת**(미쉬파트)와 **כְּהֻנָּה**(체다카)를 파괴하면서도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자들이었다. 아모스가 주창했던 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는 가진 자들과 높은 자들이 악용했던 경제적이고 법적인 억압 수단들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이론적인 잣대로 작용하였다. 북 왕국 발전의 실질적인 이득은 '미쉬파트'와 '체다카'라는 기본 규범을 무시하는 사악한 상류층에게 집중되었고, 그들은 힘없고 가난한 이웃들의 권리를 특별히 보호해 주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야훼 하나님의 사회 윤리적 요청을 거부한 자들이었다. 아모스는 사회 발전의 희생자들의 힘없는 저항과 항변을 대변하였고, 그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불의한 고난을 폭로하였다. 아모스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 부조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지나간 역사에서 증명해 보였듯이 정의와 해방의 에너지를 다시 분출하여 불의한 북 왕국 사회를 전면적으로 심판하실 것임을 선포하였다. 아모스는 사회적인 악행을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 틀 안에서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야훼 하나님과 북 왕국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제 사회 내부에서 발생한 불의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5. 참고문헌

- 노 세영, “죽이는 속죄제물에서 **כִּפּוּר**(kipper) 의미의 연구 - 제사장 신학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9집 (2005년 12월), 31-52쪽.
- 박 종수, “아모스 5:1-17 연구,” 「구약논단」 5집 (1998년 10월), 97-132쪽.
- 우 택주, “8세기 문서 예언을 형성시킨 결정적 요인들,” 「구약논단」 제 9집 (2000년 10월), 137-166쪽.
- _____, “8세기 이스라엘과 유대의 집약농업 정책의 고고학적 증거들,” 「구약과 신약의

- 세계: 박 준서 교수 헌정 논문집」(서울: 한들출판사, 2001), 222-241쪽.
- 정 중호, 「열왕기하(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11)」(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 채 홍식, “언약법전과 8세기 예언자의 사회비판,” 「구약논단」 6집 (1999년 6월), 91-123쪽.
- Daube, D., *Studies in Biblical Law*, (New York: Pilgrim, 1969).
- Eising, H., Art “קָנָה,” *ThWAT II* (1977), 902-911쪽.
- Fleischer, G., *Von Menschenverkäufern, Baschankühen und Rechtsverkehren. Die Sozialkritik des Amosbuches in historisch-kritischer, sozialgeschichtlicher und archäologischer Perspektive* (BBB 73), (Köln: Peter Hanstein Verlag, 1989).
- Gunneweg, A. H. J., *Geschichte Israel. Von den Anfängen bis Bar Kochba und von Theodor Herzl bis zur Gegenwart* (ThW 2), (Stuttgart: W. Kohlhammer, 1989).
- Kessler, R., *Staat und Gesellschaft im vorexilischen Juda, Habilitationsschrift*, (Stuttgart: W. Kohlhammer, 1990).
- Kippenberg, H. G., “Die Typik antiker Entwicklung,” ders(ed.), *Seminar: Die Entstehung der antiken Klassengesellschaft* (STW 130, 1977), 173-204쪽.
- Koch, K., “Die Entstehung der sozialen Kritik bei den Profeten,” H. W. Wolff(ed.), *Probleme biblischer Theologie, FS für G. von Rad*,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71), 236-257쪽.
- Lang, B., “Prophetie und Ökonomie im alten Israel,” G. Kehrer(Hg.), *Vor Gott sind alle gleich, Soziale Gleichheit, soziale Ungleichheit und die Religion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3), 53-73쪽.
- _____, Art “kipper,” *TWAT IV* (1984), 303-318쪽.
- Leggett, D. A., *The Levirate and Goel Institutions in the Old Testament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Book of Ruth*, (New Jersey: Doubleday, 1974).
- Mettinger, T., *Solomonic State Officials*, (Lund: Gleerup, 1971).
- Pedersen, J., *Israel Its Life and Culture I*, (Oxford: Clarendon, 1964).
- de Vaux, R., *Histoire ancienne d'Israël des origines à l'installation en Canaan. I. Études bibliques*, (Paris: Gabalda, 1971).

검색어

예언자 아모스 • 북 왕국 • 기원전 8세기 • 앗시리아 • 고대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

투고일: 2008년 1월 18일

심사일: 2008년 5월 23일

게재확정일: 2008년 6월 18일

The Social Causes of the Northern Kingdom's Fall and Prophet Amos's Judgement Proclamation

Hee-Hak Lee, Dr. 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Mokwon University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was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stable in the early and the middle of the 8th century B.C., compared to other perio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ocial circumstances of the Northern Kingdom at the period, to analyze the causes that affected the Israel's social crises, and to find the meaning and legacy of the theological controversy, implied in the judgment proclamation of Amos.

During the reign of the king, Jeroboam II, the Northern Kingdom had experienced more political stability and economical prosperity than any other period. Yet, unfortunately this newly gained economical prosperity and wealth had not been evenly distributed to all the people. Economical wealth, earned through international trades, enriched mostly not the country but the city residents. The more international peace had persisted and international trades had been active, the more economical wealth had been accumulated. However, it more widened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more landlords and rich people

arose. The growth of the number of the rich landlords and the increase of the poor tenant farmers weakened the bond of the families and caused the radical change of the traditional communal relationship. The farmers who lost their land hopelessly had to face economical difficulties, rapid urbanization and extent individualism. Although the Northern Kingdom seemed outwardly developing and prospering, prophet Amos was keenly aware of the causes of the internal collapse of the society. The leaders of the society were enjoying the expansion of the kingdom and its economical growth, but in the name of God Amos criticized their sins and proclaimed God's judgment against them, which would bring them to a total collapse. For Amos, they were the ones who destroyed the traditional basic norm system, that is, the equalitarian relationship, but hardly felt their responsibility for weakening such Yahweh religion. They were also the nonsensible who did not feel guilty, although they were destroying 'justice' (משפט) and 'righteousness' (צדקה), which consisted of the foundation of the Israeli society. They were the ones who rejected the moral request of Yahweh. Amos proclaimed that Yahweh would no more ignore the immoral situation and judge the whole of the sinful Northern Kingdom through justice and power of liberation, as he had proved through the long history of Israel. Amos understood the social evil from the point of the whole Israeli history, so that the relation between Yahweh and the Northern Kingdom confronted the cruel crisis because of the sins the leaders of the society committed.

Keywords

the Prophet Amos
the Kingdom of Israel
Assyria
the 8th Century B.C.
the Go'el in Ancient Israel